

아울러 이 자리에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양 국가 간 원자력 기술 동향에 대해 토론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경제산업성 자

원에너지청 신 호사가 차장님,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아키오 타카하시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주제 발표까지 도움을 주신 일본원자력산업협회 관계자분들과 바쁜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해체 관련 최신 현황 및 지식 공유”

다카하시 아키오(高橋明男)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사장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일본원자력산업협회는 약 40년에 걸쳐 한국원자력산업회와 정기적인 세미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원자력협회에서 공동 포럼을 개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한국대표단 여러분께도 참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호사가 차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일본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양국에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경제성,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은 원자력 안전성 향상과 국민의 수용성 촉진을 위하여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원자력산업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규제기준을 충족하여 재가동에 이른 발전소는 아직 6기에 불과합니다. 원자력의 재생을 위하여 우리 원자력 관계자가 함께 원자력 발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안전

대책을 되새기면서 재가동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최근 UAE의 바라카 1호기의 준공이 이루어졌고, 지난해에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등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와 더불어, 점차 해체 단계에 들어서는 원전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성은 물론, 노후화 및 해체에 대한 대책이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양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과 해체 관련 최신 현황 및 지식을 공유하고, 이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증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류의 기회보다도, 한일 양측의 원자력산업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사

## “국민 수용성 제고가 원전 산업·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 키오 타카하시(Akio Takahashi) 일본 원자력 산업협회 이사장님, 강재열 한국 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원전 산업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입니다.

내일(5.9) 이 곳 도쿄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십 년 간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한·일 원산회의가 「원전 안전·해체 포럼」을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세계 원전 산업이 직면한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은 경제성, 안정적



전력 공급, 온실가스 감축 등의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세계 에너지원의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